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또 생애 최고의 순간이 온다

'메이저 퀸' 신지애 내일 개막 브리티시오픈 2연패 도전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이었다. 반드시 우승컵을 지키겠다".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30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랭커셔의 로열 리덤 앤 세인트 앤스 링크스(파72·6천492야드)에서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국내에서 1인자로 군림했던 신지애는 작년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 자신의 존재를 세계 골프팬들에게 각인시켰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작년에 모두 3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신지애는 올해도 2승을 추가하며 이제는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달 중순 US여자오픈을 마치고 귀국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출국한 신지애는 "에비앙 마스터스도 큰 대회지만 브리티시여자오픈에 더 애착이 간다"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식 멤버가 된 뒤 처음 치르는 타이틀 방어전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한동안 상금 랭킹 1위를 달리다 2위로 밀려난 신지애는 총상금 222만달러가 걸린 이 대회의 우승 여부에 따라 새로운 여제의 등장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브리티시여자오픈은 2001년에야 메이저대회로 승격돼 역사는 길지 않지만 신지애 이전에 2001년 박세리(32·2001년), 2005년 장정(29·기업은행)이 우승과 인연을 맺고 있다.

신지애 이외에도 역대 최강의 멤버로 구성된 한국 군단은 US여자오픈 우승자 지은희(23·휠라코리아), 시즌 1승과 함께 상금랭킹 3위를 달리는 김인경(21·하나금융) 등 누구라도 우승 경쟁에 뛰어들 선수들이 즐비하다.

2007년 이 대회 우승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춘추전국시대가 돼 버린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베테랑 크리스티 커,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자 브리타니 린시컴과 폴라 크리머 등 미국 선수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자선수들에게는 낯선 링크스 코스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가 우승컵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가 열리는 로열 리덤 링크스는 남자대회 브리티시오픈의 순환 개최지 중의 하나이자 1998년과 2003년, 2006년 세 차례 브리티시여자오픈이 열렸다.

200여개의 벙커로 무장한 로열 리덤 링크스는 잉글랜드 북서쪽 대서양과 접해 있어 비바람까지 몰아치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1998년 이곳에서 열렸던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출전했던 박세리는 무려 20오버파 308타를 적어낸 뒤 "정말 끔찍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다"며 몸서리를 친 적이 있다.

신지애가 작년 대회 우승자지만 당시 서닝데일 골프장은 내륙에 위치해 비교적 좋은 날씨 속에서 경기할 수 있었다. 역대 대회 최소타 기록(19언더파 269타)도 모두 서닝데일 골프장에서 나왔다. 2007년 오초아가 골프의 고향이라 불리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의 올드코스에서 5언더파 287타로 우승했을 때는 파73에 전장 6천638야드로 쉽게 세팅해 링크스 코스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로열 리덤 링크스는 2003년 6천306야드, 2006년 6천463야드, 올해는 6천492야드로 점차 전장을 늘리면서 링크스 코스의 진면목을 보여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고질적 파벌싸움 무너진 마린보이

전담코치 없는 전담팀 구성
엉성한 관리 '예견된 추락'
주위 관심·기대 심적 부담

월드 챔피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20·단국대)이 침몰했다.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 예선 탈락에 이어 자유형 200m에서도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이틀 연속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자유형 400m는 박태환이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종목이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도 멜버른 대회(동메달)와 베이징올림픽(은메달)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박태환 자신에게 작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의 부진을 거울삼아 한국 수영의 간판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좀 더 세심하고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표팀-전담팀 이원화 '예견된 추락' =결국, 그동안의 훈련 방식이 문제였다. 박태환이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른 직후 스피도 전담팀이 꾸려졌다. 노민상 경영대표팀 감독과 떨어진 박태환은 전담팀에서 훈련하면서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선수로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 이후 전담팀의 감독이 교체되는 등의 잡음 끝에 박태환은 지난해 초 다시 대표팀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이 끝나고 지난해 10월에는 SK 텔레콤 박태환 전담팀이 출범됐다. 그런데 이번 전담팀에는 전담코치가 없다. 박태환은 전담팀과 올해 두 차례 미국 전지훈련을 하면서 데이브 살로(미국)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 국내에 머물 때는 태릉에서 노민상 감독의 지휘 아래 훈련했다.

문제는 이원화된 훈련을 하면서도 대표팀-전담팀 사이에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민상 감독은 박태환과 전담팀이 올 초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했을 때 훈련 일지나 프로그램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아쉬웠다.

전담팀은 전담팀대로 대표팀에서도 박태환만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원한다. 또 전담팀은 박태환의 장거리인 자유형 1,500m 기록 단축에 중점을 두고 전지훈련을 실시한 반면 노민상 감독은 주 종목인 자유영 400m와 200m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훈련 시간이 부족했다며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이같은 대표팀과 전담팀 사이의 부조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박태환에게 돌아갔다. 박태환은 28일 오전(한국시간)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한 뒤 "나 하나를 두고 말들이 많으니까 나한테는 가장 큰 상처가 됐고 아팠다"고 말했다.

전담코치 없는 전담팀의 운영도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

박태환 자신도 "전담코치 문제가 지금 가장 크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전담코치를 두는 것도 힘들다. 파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다.

◇올림픽 후유증…"동기 부여가 없었다" =박태환은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이뤘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팀이든 대표팀이든 관계자들은 이번 로마 세계대회를 큰 고비로 여겼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서 "세계적인 선수들도 올림픽 다음 해에는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올림픽 때 성적이 안 좋았던 선수가 오히려 동기부여가 돼 기록을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월드챔피언이자 2010년 런던 올림픽을 내다보는 박태환에게도 베이징올림픽 직후 열린 이번 대회가 큰 의미로 다가오기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주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보니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꿈에 아나콘다가 나타났다"는 등 심한 심적 부담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박태환 일문일답

"대표-전담팀 사이 끼어 마음고생 겪어"

남자 자유형 400m 예선 탈락에 이어 자유형 200m에서도 결승 진출에 실패한 박태환(20·단국대)이 대표팀과 전담팀을 오가며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다. 비록 월드 챔피언이지만 스무살 청년이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관심과 기대를 그는 외롭게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박태환은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코 콤플렉스에서 열린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개인 최고기록(1분44초85)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분46초68의 기록으로 조 5위, 전체 13위 머물러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경영 종목 첫날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전체 12위 성적으로 예선 탈락하며 베이징올림픽 챔피언으로서 체면을 구긴 박태환은 이틀 연속 나온 의외의 결과에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다음은 박태환과 일문일답.

- 어떤 작전이었나.

▲초반 100m를 52초대에 턴 하려고 했다. 올림픽 때 같았으면 좋은 기록이다(박태환은 이날 52초22에 100m를 돌았는데 조에서도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올림픽 이후 선수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수영장·수영복 문제는 둘째치고 다른 선수들이 많이 노력했다. 원래 올림픽에서 성적을 내면 그 다음 해에는 뒤처지는 것 같다. 쉴 타이밍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번 대회 끝나면 휴식을 취할 것이다. 몸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 경쟁자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인) 파울 비더만(독일)은 2년 전부터 대결한 선수인데 좋은 기록을 내 축하한다고 말해줬다. 연습을 열심히 한 것 같다. 내게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전담팀 분들에게도 농담삼아 "내가 비더만에게 일단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올림픽 다음 해에는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 전담코치 없는 전담팀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원래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가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 나 하나를 두고 말들이 많으니까 나한테는 가장 큰 상처가 됐고 아팠다. 전담코치가 없어 더 나은 성적을 위하여 택한 것이 미국 전지훈련이었다. 미국에서는 훈련도 잘 됐다. 이번 대회를 기대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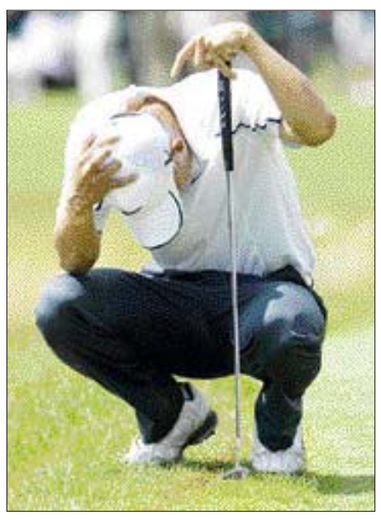
앤서니 김 뒷심 부족

PGA 캐나다 오픈 공동 3위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캐나다오픈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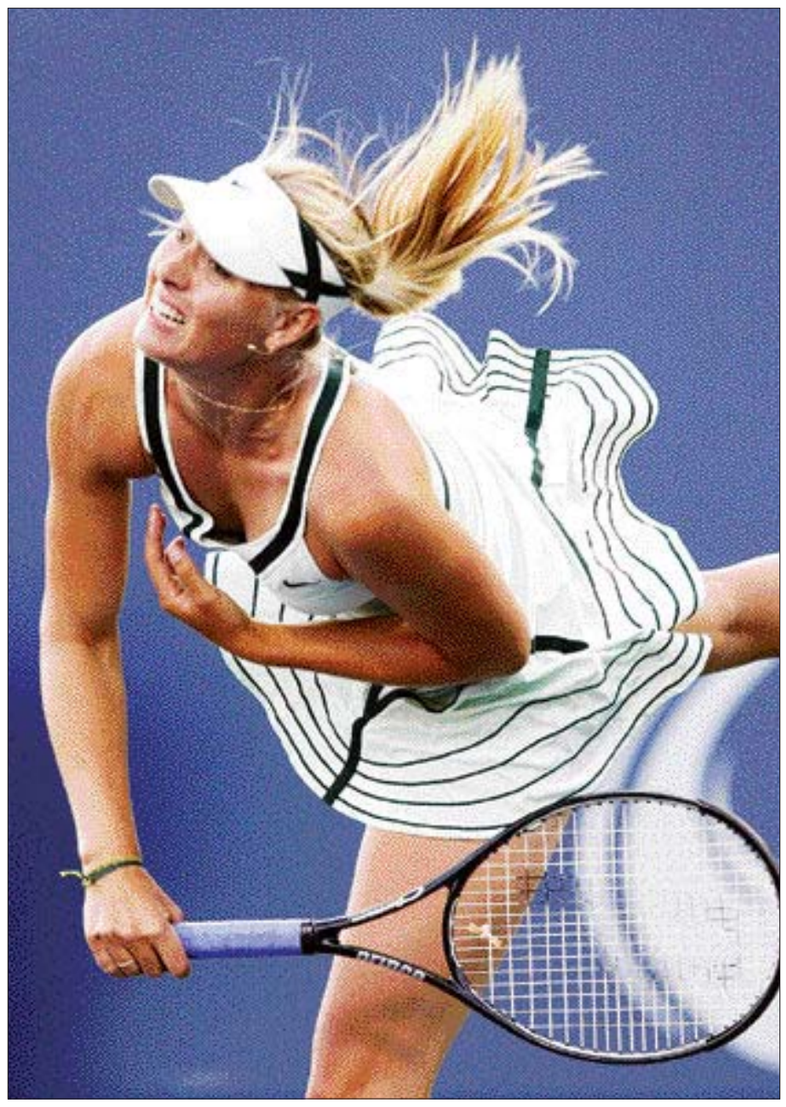
앤서니 김은 28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의 글랜애비 골프장(파72·7천22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5개로 1타를 잃어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로 대회를 마쳤다.

악천후로 전날 3라운드 9번 홀까지 마친 앤서니 김은 재개된 경기에서 3라운드 종료 시점까지는 15언더파 201타로 제이슨 더프너(미국),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함께 공동 선두를 달렸으나 4라운드에서 스퍼트를 하지 못해 결국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3위에 만족해야 했다. 17번 홀(파4)까지 선두에 2타 뒤져 있던 앤서니 김은 마지막 홀(파5) 두 번째 샷이 물에 빠지는 바람에 추격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달 초 AT&T 내셔널 3위에 이어 7월에만 두차례 톱5안에 들었다. 3월 혼다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도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선전해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 공동 8위를 기록했다. 혼다클래식 우승 이후 처음 톱10 진입이다.

/연합뉴스



샤라 "내 서브 받아봐"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가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에서 열린 뱅크 오브 더 웨스트(Bank of the West) 테니스 토너먼트에서 일본의 스기야마 아이에게 서브를 넣고있다. 샤라포바가 3-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